

섬김: 승리하는 삶의 비밀

-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8~16
- 요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12~13절).
- 찬송 325장(통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220장(통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이과의 목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아론과 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배려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2.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우리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를 보통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3가지의 의미들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빈도수에 따른 다섯 가지 의미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실행하다’, ‘행하다’, ‘신하가 왕을 섬기다’입니다. 사람을 향한 섬김이 봉사와 선행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섬기다’에 대해 국어 사전은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남을 위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것,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즉, 섬김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존경, 봉사, 순종, 친절, 배려, 돌봄, 용서, 용납, 사랑, 동정과 같은 단어들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자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섬겼습니다.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마주친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직면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선봉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전투에서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패가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위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한 후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영웅일까요?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결코 빼놓을 수 없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숨은 영웅은 아론과 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떠받들어 주지 않았다면 아말렉과의 전투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양적 사고로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섬기는 모습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은 모세 보다 세 살 많은 형입니다(출 7:7 참조). 훌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하기에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세푸스의 말대로라면,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윗 사람이 아랫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여전히 아랫 사람인 모세를 섬겼습니다. 아론이 윗 사람이었지만 모세 곁에서 모세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세를 섬긴 사실에 있었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2.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두 손을 들고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너무 힘들어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필요를 정확히 인지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한 후 그의 두 팔을 하나씩 붙잡아 해가 질 때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입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있던 아론과 훌의 팔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들의 팔도 힘이 들어 그들도 모르게 내려오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모세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그들의 팔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승리--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닛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는 자신의 시간보다 섬김을 받는 대상의 시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섬김을 받는 대상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 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론과 훌이 했던 것과 같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기대하십니다.

3. 사랑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게리 채프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언어(The Love Languages of God)>라는 책에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합니다: 인정하는 말, 친밀한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 접촉. 저자는 각 사람에게 이러한 다섯 가지 언어들 중 각자에게 주된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실천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받으면 사랑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이라면 신체적 접촉보다 인정하는 말을 해 줄 때 상대방은 사랑을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게리 채프먼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랑의 언어에 담긴 이러한 원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친구, 이웃 관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는 매우 소중하며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필요나 사랑의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대로만 섬기려 한다면 자칫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야고보는 설득력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벳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약 2:15-16). 일용할 양식과 옷, 즉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이라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만 고집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웃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때에 혹시 그러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만 열심히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III. 생각살기

1. 당신의 사랑의 언어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 소그룹이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